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BY: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4455

2007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제인 에어』에 나타난 페미니즘과 제국주의적 한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안 서 현

『제인 에어』에 나타난 페미니즘과 제국주의적 한계

A Study of Feminism and the Limitation of Imperialism in *Jane Eyre*

200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안 서 현

『제인 에어』에 나타난 페미니즘과 제국주의적 한계

지도교수 김 재 풍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전공

안 서 현

안서현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Ⅱ. 빅토리아조 여성의 사회적 현실 · · · · · · · · · · · · · · 4

Ⅲ. 당당한 여성의식의 형성 · · · · · · · · · · · · · · · · · · · 7

Ⅳ. 여성 희생적 사고에 대한 저항 · · · · · · · · · · · · · · 17

Ⅴ. 남녀평등 관계의 확립을 통한 여성의 승리 · · · · · 30

Ⅵ. 페미니즘과 제국주의적 한계 · · · · · · · · · · · · · · · 33

Ⅶ. 결 론 · 38

BIBLIOGRAPHY

Abstract

A Study of Feminism and the Limitation of Imperialism in *Jane Eyre*

Seo-Hyun An
Advisor : Prof. Jae-Pung Kim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novel 『*Jane Eyre*』 is a kind of Bildungsroman in which a woman named Jane Eyre tries to reclaim autonomy while resisting the Victorian society where women were usually oppressed. In this novel, Jane was left an orphan when she was born and suffered from social and class suppression, but she managed to tide over such difficulties and grew to finally get married to Rochester.

This novel suggested a new image of woman, not a traditionally passive image of woman of that time period. It could be interpreted from a feminist viewpoint, and this work has much room for positive and negative criticism simultaneously for Jane's resistance in a patriarchal society and its subsequently revealed woman's role in the situation of the time. Jane, who had been vehement in resisting undue suppression during childhood in the custody of her aunt, finally complied with traditional social value.

This novel was evaluated as a revolutionary work growing out of immoral, overly deep-rooted social ideas at that time; on the other hand, this novel was reviewed as a work portraying Jane as a woman who helplessly compromised with social convention and went with its standard

of value. Jane came to form her identity while resisting male-dominant ideology. However, her resistance was not just a woman's resistance, but was also based on racial discrimination by imperialistic principles.

The fact that the novel 『*Jane Eyre*』 had to do with the imperialistic principles was portrayed through the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revealed through Rochester's former wife, Bertha, who was locked in an attic by Rochester. The imperialist's aspects were noticeably revealed at the scene where Saint John desired to be a superior man by civilizing and dominating other races by working as a white missionary in India. Jane also revealed her imperialistic dominant desire, as seen in St. John's getting enslaved to the idea of civilizing India.

Ⅰ. 서 론

『제인 에어』(*Jane Eyre*)는 빅토리아조 여성이 억압받던 사회에 저항하며 자주성을 찾고자하는 성장소설이다. 19세기 가부장제 사회에서 고아로 태어나 사회적이고 계급적인 억압을 당했던 제인(Jane)이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결국엔 로체스터(Rochester)와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다. 당시의 수동적이던 여성이 아닌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 소설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제인의 저항과 그 가운데에서 드러난 여성의 역할에 대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비판과 부정적인 비판을 동시에 받을 여지가 있다.

숙모의 보호를 받던 어린 시절에 부당한 억압에 반발하는 격정적이던 제인은 결국에는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에 순응하고 만다. 이 소설은 당시의 부도덕하고 지나친 사회의 통념을 벗어난 혁명적인 작품이라고 비판받는가 하면, 사회 관습과 타협하고 그 가치기준에 순응해버리는 어쩔 수 없는 작품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처럼 이 소설에 대해서로 상반되는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여성문제와 관련한 샤롯 브론테(Charlotte Brontë)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하게 해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풍속적인 감상주의 소설”[1]이고, 또 다른 “리처드슨(Samuel Richardson)의 소설 『파멜라』(*Pamela*)”[2]에 불과한 작품이라고 혹평을 받던 『제인 에어』는 기존의 남성위주의 문학작품 연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등장한 페미니즘비평으로 인해 문학적 가치를 재평가 받게 되었다. 특히 케이트 밀렛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보고, 이 관계를 지배하는 구조를 성과 정치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고, 성차별이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고정화 된 성별 범주에 따라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바로 남녀차별을 만드는 주원인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성 혁명(Sexual Revolu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사회에 저항하는 여성을 대변하는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하였다.[3]

---

1) Miriam Allot, ed. *The Brontës-the Critical Heritage* (London & Bosteon: Routledge & Kepan Paul, 1974), pp. 311-14.

2) Elizabeth Rigby, "Vanity Fair, Jane Eyre and the Governesses." *Quarterly Review 84* (1848). pp. 105-112.

그러나 이러한 여성론적 해석은 1980년대 이후 새로운 비평으로 인해 재평가 받게 된다. 『다락방의 미친 여자』(*The Mad Woman in the Attic*)에서 길버트와 구바(Sandra Gilbert & Susan Gubar)는 "19세기 여성작가들은 문자 그대로 부친의 집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글을 썼으며, 표면적으로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구성 속에서 독립적인 자아를 추구하려는 강렬한 충동을 표현하고 있다"[4]고 주장한다. 버사(Bertha)라는 반항적인 제인의 분신을 등장시켜 자아 추구를 위해 반항을 표출한 것이다.

또한 "19세기 소설작품은 다시 읽혀져야 한다"[5]는 주장이 제기된다. "19세기를 지배했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적 재현의 결과인 문학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으며,"버사가 다락방에 갖힌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것은 "인종차별적이며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웨일즈 출신의 부친과 서인도제도 출신의 모친을 가진 버사와 같은 출신배경을 지닌 진 리스(Jean Rhys)는 『넓은 사가소 바다』(*Wide Sargasso Sea*)라는 소설을 통해 『제인 에어』의 버사의 입장에서 버사의 생활을 재묘사함으로서 버사를 새롭게 인식시킨다. 다락방에 갇혀 삶다운 삶을 갖지 못한 버사에게 새로운 삶을 갖도록 한 것이다.[6]

식민주의 시대에 식민지 여성이 겪어야했던 억압은 서구유럽의 여성이 겪어야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 식민지 여성은 남성에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서구유럽에게는 타자라는 이유로 억압받는 존재였다. 그들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스스로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제3세계 지식인이 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7]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비평은 『제인 에어』의 평가에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주며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토리아조 영국의 사회적 현실에 직면한 당대의 여성상과 대립적인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제인의 당당한 여성의식의 형성과 남녀평등관계를 확

---

3) Kate Millet, 『성의 정치학』. 정의숙 · 조정호 공역 (서울: 현대, 1983), p. 24.
4) Sandra M. Gilbert &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eaven & London: Yale UP, 1984), p. 340.
5) Gayatri Chakravorty Spivak,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Methuen, 1987), p. 239.
6) Spivak, p. 268.
7) 고부응, 『초민족 시대의 민족 정체성 - 식민주의 · 탈식민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pp. 21-22.

립시킴으로써 쟁취한 여성의식의 승리를 살펴보고, 당시의 페미니즘과 제국주의적 한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Ⅱ. 빅토리아조 여성의 사회적 현실

19세기 빅토리아조 영국 사회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천사와 같은 이상화에 사로잡혀 있었고, 여성은 경제적, 법률적 그리고 성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고 복종해야만 했다. 여성은 "남성을 기쁘게 하기 위한 존재"이며, "자연에 의한 법칙이고, 여자는 남편의 모욕을 참아야"했다.[8)]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은 가정과 가정 주변에서 생산적인 일을 함께 하는 합동 노동을 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여파로 가내수공업은 축소되었고, 남성들은 작업장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경제적 역할에서 분리되어 집안에 남게 되었다. 이는 영국의 경제적인 구조가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산업혁명과 가내 산업의 축소로 인한 남성의 사회 진출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은 남성과 여성의 구별과 동일시되었다.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 중심적 편견은 남성에게는 "우월한 지위인 공격성, 지성, 힘, 효율성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열등한 지위인 수동성, 무지, 온순, 덕성, 비효율성이라는 성 범주를 정"하였다. 그 범주에 따라 여성에게는 "가사, 육아 등의 생물학적인 차원의 사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인간적인 관심, 야심, 동물의 활동의 영역을 넘어선 인간의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모든 것"[9)]은 남성에게 부여되는 성 역할이 자연적인 질서로 재생산되었다. 가사노동은 남성들의 임금노동과 구별되어졌고, 비생산적인 일로 간주되는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노동을 하지 않는 경제적으로 무용한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 되어졌다. 결국 남성의 가족 부양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성은 남성의 재산 정도에 따라 정체성이 규정되는 소유물로 추락하였다.[10)]

19세기의 중상류층 여성들이 일과 동떨어져 있었던 반면, 가난한 여성 근로자들은 하루 12시간의 노동시간에 밤에는 집에서 가사 일을 돌봐야 하는 이중의 억

---

8) J. J. Rousseau, *Emile*, 손정수 역 (서울: 배재서관, 1994), pp. 283-336.
9) Millet, p. 54.
10) Julia Prewitt Brown, *A Reader's Guide to the Nineteenth Century English Novel,* 박오복, 이경순 공역 (서울: 열음사, 1990), p. 115.

압에 시달렸다. 독신 여성에게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으며, 교육받은 여성이 가질 수 있었던 직업이란 고작해야 학교 선생이나 가정교사로 한정되었고, 여성들의 영역은 엄격히 가정 안으로 고정되었다. 빅토리아조의 여성은 가정 속에서만 존재하며 천사처럼 순결한 존재여야 했다. 이로서 여성의 교육은 가정에서 행해질 수 있는 가사에 적합한 교육으로 제한되었다.

당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한 지위에 반하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합리적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관습과 법적인 제약, 교육의 부재 등으로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존재였으며, 자유와 독립, 이성과 덕성을 지켜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여성에 대한 교육이 숙녀로서의 교양교육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여성이 자기 개발을 위한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남성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11]

『제인 에어』가 쓰여진 당시 영국은 세계 각국을 식민지화하고 있었다. 영국의 대외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놀랄만한 규모의 식민지가 개척되고 있었다. 19세기 영국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통치하는 것은 인류를 위한 일로 생각하고 식민지 문화를 제거하는 일을 핵심적인 사명으로 생각했다. 그 당시 영국인들은 제국에 대한 충성심, 유럽 백인의 인종적 우월성 그리고 식민지 국민을 문명화시켜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원리에 얽매어 있었다.

『제인 에어』가 쓰인 것은 1846년인데, 서인도제도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것은 8년 전인 1838년이다. 영국의 노예폐지론자들은 기독교적 우애론과 인간의 권리를 내세우며 유럽의 양심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들에 노예 폐지를 강권하였다. 노예해방령이 성립된 후 영국은 서인도 제도에서의 노예제를 포기하고 동양의 인도로 관심을 돌리게 되고, 정복이 아닌 문명화라는 미명아래 또 다른 식민지를 형성시켜 나갔다. 특히 열등한 범주에 속하는 여성과 식민지의 유색인종간에 동질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이데올로기는 이 당시의 소설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들에게 투영되었다.

제국주의 원리와 성의 분류 문제는 어느 면에서는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받고 주체성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이 주권을 상실한 국가적 정체성을 빼앗긴 식민지 국민들의 삶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가

---

11) Mary Wollstonecraft,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Ed. Barbara Taylor (London: Avid Campbell Pub., 1992), pp. 21-28.

부장 제도와 제국주의는 남성 우월주의를 근간으로 하였고 주체성을 갖기를 원했던 여성들, 즉 남성위주의 위계질서에 저항하는 여성들은 야만인이나 식민지의 유색인종으로 취급되었다. 브론테도 『제인 에어』에서 남성에 의해 지배받는 여성의 처지를 식민지의 노예와 터키 궁전에 살고 있는 후궁에 비유하였고 남성들은 노예상인이나 술탄(Sultan)과 같은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브론테는 영국이 아닌 중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하여 제인을 군주제에 항거하는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가부장제에 억압받는 제인을 지배받는 식민지인들과 비교하며 영국의 제국주의를 보여줌과 동시에 제인을 불평등한 사회 현실 속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Ⅲ. 당당한 여성의식의 형성

제인은 빅토리아 시대의 순종적이며 봉사하는 천사의 모습인 이상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아름답지도 않고, 가난하고 신분이 낮으며 고아이기까지 하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반감을 가진 브론테는 제인에 자신이 바라는 당당하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여성 스스로 자아의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표현한다. 이런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브론테가 여성의 선결조건으로서 아름다워야 한다는 점을 부정한 것은 여성론적 견해를 강조한 것"[12]이었다. 여성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져야만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을 부정하려는 작가의 의도인 것이다.

제인은 여성이고 고아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자의식이 강한 아이이다. 브론테는 제인의 자의식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I" 로 문장을 시작한다. 제인은 게이츠헤드(Gateshead) 에서 숙모인 리드부인(Mrs. Reed) 집에 의탁하여 살아가며, 예쁘지 않고 착하고 행복한 어린이가 아닌 이유로 친척들의 멸시와 하인들의 무관심 속에서 산다.

작가는 제인과는 대조적으로 사촌들인 심술궂고 방정맞은 엘리자(Eliza) 와 조지아나(Georgiana)를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주인공과 달리 다른 여성 등장인물들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데 많은 면을 할애하는데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내면은 허영과 천박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중적 면모를 보여준다. 이는 여성을 외모로만 평가하려던 그 당시 기준에 반박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여성은 아름답게 자신을 꾸며 남성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만 여겨졌다. 남성의 소유물로만 여겨지는 여성에 대한 반감을 제인을 통해 표현하려 한 것이다.

미래의 호주가 될 존 리드(John Reed)는 매우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로 리드가의 미래의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며 제인을 조롱하고 끝없이 괴롭힌다. 제인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력도 거침없이 휘두르며 가부장적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는 인물이다. 날씨가 좋지 않아 모두 산책을 나가지 않은 그 날, 커튼 뒤 창가에 숨어 책을 읽고 있던 제인에게 포악한 존은 그 자유마저 빼앗으려고 한다.

---

12) Merry Williams, *Women in the English Novel 1800-1900* (London: Macmillan, 1984), p. 92.

넌[제인] 우리 책을 볼 권리가 없어. 엄마가 넌 더부살이랬어. 넌 돈이 없어. 네 아버지는 너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어. 넌 구걸해야만 해. 넌 여기서 우리 같은 신사아이들과 함께 살고,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 엄마의 돈으로 옷을 사 입고하는 건 안돼. 자, 내 책장을 뒤지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것들은 모두 내 책이니까. 이 집안에 있는 건 모두 내 것이야. 몇 년 만 있으면 내 것이 될 거니까 말이야.

"You[Jane] have no business to take our books; you are a dependent, mamma says; you have no money; your father left you none; you ought to beg, and not live here with gentleman's children like us, and eat the same meals we do, and wear clothes at our mamma's expense. Now, I'll teach you to rummage my book-shelves: for they are mine; all the house belongs to me, or will do in a few years."(10)

두려움으로 시작된 제인의 감정은 존이 책을 던져 상처를 입히자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항해 제인은 자신이 읽었던 책에 묘사되었던 폭군들의 모습을 존과 비교하며 그에게 대항한다.

고약하고 잔인한 녀석!
넌 살인자 같아 - 노예감독 같고 - 로마황제 같아.

"Wicked and cruel boy!" I said. "You are like a murderer - you are like a slave-driver - you are like the Roman emperors!" (10)

폭력에 대항한 제인의 행동은 그 집안사람들에게 미래의 주인에게 대든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마치 쥐나 못된 짐승과 같은 존재로 비난받으며 붉은 방에 감금된다. 붉은 방은 제인의 외삼촌이 임종을 맞이한 곳으로 남성지배적 질서를 나타내는 공간이다.

붉은 방은 여분으로 비워둔 방으로 사람이 자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마호가니의 육중한 기둥으로 받쳐진 침대엔 진홍색 비단 휘장이 드리워져 신전처럼 놓여 있었다. 언제나 덧문이 닫혀 있는 두 개의 큰 창문에는 같은 진홍색 꽃무늬를 수놓은 휘장이 드리워져 창문을 반쯤 덮고 있었다. 융단은 붉은 빛깔이었다. 침대 발치에 놓인 테이블도 진홍색

천으로 덮여 있고, 벽은 얼핏 보아 분홍색을 띤 듯한 연한 황갈색이었다.

The red-room was a spare chamber, very seldom slept in. A bed supported on massive pillars of mahogany hung with curtains of deep red damask, stood out like a tabernacle in the center, the two large windows, with their blinds almost drawn down, were half shrouded in festoons and falls of similar drapery; the carpet was red; the table at the foot or the bed was covered with a crimson cloth.(12 -13)

붉은 방 자체가 제인이 "갇혀 있는 환경의 상징"으로서 "이곳에서 자신이 억압받고 있는 사회의 부당함에 분노하게"된다.[13] 이 붉은 방에 감금당하는 것은 "억압받는 여성의 육체이고, 청소년기의 그녀가 겪어야할 통과 의식에 해당하는 것"이다.[14] 냉기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찬 이 붉은 방에 갇혀 '반항적인 노예'의 기분을 느낀 제인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억울하다고 외치며, 자아의식의 형성기를 겪기 시작한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은 극한 공포감으로 이어지고, 비명을 질러서 리드부인을 부르지만 완전히 굴복하여 얌전한 상태가 되지 않는 한 나갈 수 없다는 대답만을 듣는다. 이는 리드부인이 생각하는 19세기의 이상적 여성상으로 제인이 길들여지기를 명령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인의 리드부인에 대한 감정은 또 다른 모습의 가부장적 권위자로서 각인 된다. 제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절을 함으로써 붉은 방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 당시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의문에 답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세월이 흐른 후 제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리드부인이나 그녀의 아이들이나 그녀의 하인들과 나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듯이 사실 나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자신 중에 누구와도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를 애정으로 대해줄 의무는 없었다. 기질이나 재능이나 취미에 있어서 그들과 맞지 않는 이질적인 아이, 또 그들에겐 아무런 이익도, 즐거움도 더해줄 수 없는 무용지물이었다. 나는 그들의 대우에 분노의 감정을 품고 그들의 판단력을 경멸하는 해로운 아이였던 것이다.

---

13) Gilbert & Gubar, p. 340.

14) Elaine Showalter. *A Literature of Their Own: British Women Novelists From Brontë to Lessing* (Princeton: U of Princeton, 1977), pp. 114-115.

I had nothing in harmony with Mrs. Reed or her children, or her chosen vassalage. If they did not love me, in fact, as little did I love them. They were not bound to regard with affection a thing that could not sympathise with one amongst them; a heterogeneous thing, opposed to them in temperament, in capacity, in propensities; a useless thing, incapable of serving their interest, or adding to their pleasure; a noxious thing, cherishing the germs of indignation at their treatment, of contempt of their judgment.(15)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맞지 않은 제인에게는 교육을 통한 억압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리드부인은 자선학교인 로우드 학교(Lowood Institution)에 보내기로 결심한다. 리드부인은 로우드의 교장인 브로클허스트(Brocklehurst)를 부른다. 브로클허스트의 외양에서도 그가 가진 남성적 권위를 엿볼 수 있다.

검은 기둥이 서있었다! 아무튼 내겐 첫눈에 그렇게 보였다. 똑바로 뻗고 호리호리한 검은 옷의 모습이 융단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그 기둥 꼭대기의 냉담한 얼굴은 마치 기둥머리 식으로 기둥 위에 자리 잡은 조각된 가면과도 같았다.

I looked up at- a black pillar!- Such, at least, appeared to me, at first sight, the straight, narrow, sable-clad shape standing erect on the rug: the grim face at the top was like a carved mask, placed above the shaft by way of capital.(31)

브로클허스트의 모습을 이처럼 묘사함으로써 작가는 제인이 계속해서 로우드에서도 권위와 억압에 시달릴 것을 예시한다. 가부장적 권위와 청교도주의에 가득 차 있는 브로클허스트와 제인은 첫 만남부터 대립적 태도를 보인다.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제인은 “몸을 튼튼히 해서 죽지 않아야 해요."(34)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시편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시편은 재미가 없어요"(35)라고 대답한다. 여기에서 제인이 반 기독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치관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리드부인은 자신의 의도를 브로클허스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 꼬마 여자애는 제가 원하는 성격이나 기질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로우드 학교에 이 아이를 입학시켜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엄격히 감독해 주시고, 무엇보

다도 이 아이의 가장 나쁜 결점인 남을 속이는 기질을 고쳐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장래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쓸모 있고 겸손할 줄 알도록 해주세요."

"This little girl has not quite the character and disposition I could wish: should you admit her into Lowood school, I should be glad if the superintendent and teachers were requested to keep a strict eye on her, and above all, to guard against her worst fault, a tendency to deceit."..... "I should wish her to be brought up in a manner suiting her prospects, to be made useful, to be kept humble."(33)

리드부인은 제인을 고아로서의 장래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시키기를 바란다. 그러나 제인은 리드부인의 의도적인 말에 분통이 터지지만, 특히 자신을 남을 속이는 기질이 있다고 말하는 리드부인의 억지에는 참을 수 없어서 감정이 폭발한다.

"당신과 친척이 아닌 것이 다행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내가 어른이 되어도 절대로 당신을 만나러 오지 않겠어요. 누가 당신을 얼마만큼 좋아했냐고 물으면, 그리고 어떻게 대우해 주었냐고 물으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말할 거예요.”....“내가 고통으로 숨이 막혀서 필사적으로 ”아주머니 “제발!, 제발, 숙모!“라고 외쳐도 나를 강제로 난폭하게 붉은 방에 밀어 가두었던 일을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벌은 당신 자식이 나를 때렸기 때문인데-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때렸는데- 나에게 그런 벌을 준 것도 기억할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을 착한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나빠요, 몰인정해요. 당신이야말로 거짓말쟁이에요!"

"I am glad you are no relation of mine: I will never call you aunt again as long as I live. I will never come to see you when I am grown up; and if any one asks me how I liked you, and how you treated me, O will say the very thought of you makes me sick, and that you treated me with miserable cruelty."..... "I shall remember how you thrust me back- roughly and violently thrust me back- into the red room, and locked me up there, to my dying day; though I was in agony; though I cried out, while suffocating with distress, "Have mercy! Have mercy, aunt Reed!" And that punishment you made me suffer because your wicked boy struck me- knocked me down for nothing. I will tell anybody who asked me

questions this exact tale. People think you a good woman, but you are bad; hard-hearted. You are deceitful!" (35-36)

리드부인을 향한 감정의 분출과 계속되는 저항은 제인을 승리감에 취하게 했고 자유로운 감정을 느끼게 했으나, "처음에는 향기 있는 포도주처럼 입에 넣으면 신선하고 상쾌했으나 그 뒷맛은 마치 독약이라도 마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37) 라는 후회를 하게 하는 고통을 느꼈다.

제인이 쓸모 있고 겸손한 태도를 배우기 위해 교육받으러 간 로우드는 가난하지만 고아인 여자아이들을 기독교적 윤리에 따라 교육하는 자선학교이다. 이 곳은 유일한 남성이며 가부장적 권리로 가득 찬 브로클허스트에 의해 비인간적이고 억압적인 규율로 지배되고 있는 곳이다. 브로클허스트는 인내심과 겸손, 그리고 순종하는 당시대의 이상적 여성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여학생들에게 굶주림의 고통을 참게 했다. 아침 식사로 나온 탄 스프로 굶주림에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버터 바른 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브로클허스트는 템플선생(Miss Temple)에게 훈계를 한다.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저의 방침은 아이들을 호강시키고 옳지 못한 습관을 길러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선생님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참을성 있는 인간이 되도록 극기심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못 먹은 음식 대신 더 맛있는 것을 주거나 적당히 메우는 것 같은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만족이 되겠지만 이 학원의 목적을 짓밟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공복을 참고 견디어 내어 불굴의 정신을 기르도록 학생들을 격려해서 교화의 기회로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You are aware that my plan in bringing up these girls is, not to accustom them to habits of luxury and indulgence, but to render them hardy, patient, self-denying. Should any little accidental disappointment of the appetite occur, such as the spoiling of a meal, the under or the over dressing of a dish, the incident ought not to be neutralised by replacing with something more delicate the comfort lost, thus pampering the body and obviating the aim of this institution; it ought to be improved to the spiritual edification of the pupils, by encouraging them to evince fortitude under the temporary privation."(63)

또한 여성들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억누르게 하고 검소함을 배우게 한다는 명목으로 성숙한 처녀들을 단발머리와 똑같은 갈색 옷으로 획일화시키며 억압하였다. 반면에 그의 아내와 두 딸은 빅토리아 시대 상류층 여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아름다운 외모와 지진 머리등 남성의 소유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녀들은 브로클허스트가 학생들에게 검소한 옷차림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자연적 곱슬머리까지 자르게 하며 여성이 가진 개성과 정체성까지 그 당시 추구되는 여성상에 부합되도록 할 때 등장한다.

이 귀부인들은 좀 더 빨리 와서 브로클허스트씨의 옷에 관한 강의를 들어야 했다. 벨벳, 비단, 모피로 굉장한 치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세 사람 중에 젊은 두 사람은 (열여섯과 열일곱 짜리 아름다운 소녀) 타조 깃털로 장식하고 당시 유행이던 회색 수달피 모자를 쓰고, 그 아담한 모자 차양 밑에서 정성껏 지진 탐스러운 연한 머리채가 늘어져 있었다. 중년부인은 윈 담비가죽으로 테를 두른 값진 벨벳 숄을 두르고 프랑스식 지진 머리털 가발을 이마에 달고 있었다.

They ought to have come a little sooner to have heard his lecture on dress, for they were splendidly attired in velvet, silk, and furs. The two younger of the trio(fine girls of sixteen and seventeen) had gray beaver hats, then in fashion, shaded with ostrich plumes, and from under the brim of this graceful head-dress fell a profusion of light tresses, elaborately curled; the elder lady was enveloped in a costly velvet shawl, trimmed with ermine, and she wore a false front of French curls. (65)

작가는 이 장면에서 제인의 눈을 통해 브로클허스트의 모순된 행동을 비판하며 남성의 소유물로 교육되어지는 그 당시 여성들을 비난한다. 로우드의 학생들과 브로클허스트의 아내와 두 딸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남성의 권위가 여성들을 억압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리드가와 로우드 모두에서 가부장적 권위에 억압당하며 힘든 생활을 영위해 나가지만 로우드에서 만난 두 여성은 제인이 리드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맛보게 해 주고 정신적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그 중 템플선생은 브로클허스트에 대항하며 새로운 여성상을 대변하는 강인한 힘은 없지만,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이상적인 스승의 모습이다. 템플선생은 브로클허스트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냉소하는 자세로 보고 있지만 대응없이 자신이 가진 권한 내에서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을 한다. 제인의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태도와 템플선생의 순응적 모습은 매우 다르게 비쳐진다. 그러나 제인은 템플선생에게서 자신이 받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힘든 로우드 생활에서 정신적 지주로 여기게 된다. 템플선생은 제인이 가진 반항적 태도를 억누르게 하고 교육받은 숙녀의 길로 이끌어 주는 큰 역할을 담당한다.

제인과 같은 로우드 학생인 헬렌(Helen)은 매우 수동적인 여성상으로 모든 고통을 기독교적 사상으로 견디어 내며 현실에 순응한다. 내세지향적인 기독교사상을 지닌 헬렌은 스캐처드선생(Miss Scatcherd)으로부터 계속해서 모욕을 받고 처벌을 받아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며 그 비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인내한다. 그녀는 쇼월터의 말대로 "로우드의 천사, 완전한 희생자, 여성다운 정신적 존재, 그리고 자기 학대적인 경향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다.[15]

작가는 순종과 인내로 일관되는 헬렌과 억압적 현실을 비판하며 능동적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인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헬렌은 고통을 받을수록 현실에 대항하는 대신 순종하며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이 커지리라 기대한다. 그녀는 육체에서 해방 될 날만을 기다리며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다. 제인은 헬렌의 현실 순응적 삶의 방식과는 반대로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로우드의 현실에 분개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 "만일 우리들이 잔인하고 옳지 못한 사람들을 친절한 순종으로 대해주면 나쁜 사람들은 무엇이나 자기네 마음대로 해치울 거야. 그들은 두려움도 타지 않을 거구, 따라서 마음을 고치려 들지 않아서 점점 더 나빠 질 거야. 우리가 이유 없이 얻어맞으면 힘껏 시원히 매로 갚음을 해줘야 해. 그래야 한다고 믿어- 우리를 때린 사람에게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힘껏 매로 가르쳐줘야 해."

> "If people were always kind and obedient to those who are cruel and unjust, the wicked people would have it all their own way; they would never feel afraid, and so they would never alter, but would grow worse and worse. When we are struck

15) Showalter, p. 118.

at without a reason, we should strike back again very hard; I am sure we should - so hard as to teach the person who struck us never to do it again."(57)

헬렌은 로우드의 모진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로 폐병으로 인하여 떠나게 된다. 헬렌은 제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둔다. 즉 자신이 바라던 자유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 현실에서는 고통으로 희생된 것이다. 반면 제인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로우드 학교에서 자신의 계급을 학생에서 선생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된다. 리드가에서 반항적 성격으로만 형성되었던 제인의 여성의식과 주체성은 로우드에서 만난 두 여성인 템플선생과 헬렌에 의해 "훈련되고 억압된 인물"(116)로 성장되게 된다. 제인이 그들에게서 배운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에 순응하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이었다.

헬렌의 죽음으로 자유로운 세계로 한발을 내딛은 제인에게 정신적 지주였던 템플 선생이 결혼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은 현실세계에서 순응되는 삶에 동화되었던 제인에게 다시 한번 자아를 의식하게 되고, 예전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며 자유를 열망하고 변화와 자극을 갈망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기원은 텅 빈 공간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고 제인의 갈망은 점차 약해져 결국 "그렇다면 적어도 저에게 새로운 노역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된다.

나는 자유를 열망했다. 자유를 갈망했다. 자유를 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기도 소리는 그때 약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기도를 그만두고 변화와 자극을 달라고 좀 더 겸허한 기원을 하였다. 그 기원도 역시 희미한 공간 속으로 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면" 하고 나는 거의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렇다면 적어도 제게 새로운 노역을 받게 해주소서!"

I desired liberty; for liberty I grasped; for liberty I uttered a prayer; it seemed scattered on the wind then faintly blowing. I abandoned it and framed a humbler supplication; for change, stimulus: that petition, too, seemed swept off into vague space: "Then," I cried, half desperate, "grant me at least a new servitude!" (86)

새로운 삶을 향한 기대로 제인은 로우드를 떠나지만 실제로 그 당시 가난하고 교육받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던 가정교사로서의 새 삶이 시작된다. 제인의 삶에서 억압적이고 가부장적 권위 속에서 학대만을 받았던 리드가와 로우드는 제인이 정체성을 깨닫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자아의식을 확립하게 한 중요한 공간이자 경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Ⅳ. 여성 희생적 사고에 대한 저항

제인은 이제 의존적인 여성이 아닌 경제력을 갖는 독립체로서 새로운 세계로 접어든 성년기의 독신여성이 겪어야만 하는 결혼이라는 문제로 많은 시련을 겪고, 로체스터(Rochester)와 세인트 존(St. John) 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명의 남성과 만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되는 인물이지만 로체스터는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적 권위로 세인트 존은 청교도 사상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희생을 내세우며 여성의 희생과 순종만을 요구하는 공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의 여성 희생적 사고에 제인은 저항하며 스스로의 위치를 확립해 간다.

새로운 삶과 넓은 세계에 대한 욕구로 제인이 새로운 삶을 선택한 곳은 쏜필드(Thornfield)에서의 가정교사직 이었다. 당시의 가정교사는 교육받은 가난한 독신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하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천한 고용인이었다. 작가 자신도 가정교사를 경험하며 받았던 모멸감을 제인이 후에 만나게 되는 교육받은 지적인 두 여성인 다이아나와 메어리 자매에 빗대어 이야기 한다.

다이아나와 메어리는 곧 무어 하우스를 떠나 영국 남부의 번화한 대도시로 가정교사로서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생활과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을 천한 고용인으로 여기고 그들의 천부적인 재질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이 습득한 재능을 요리사의 솜씨나 하녀의 취미쯤으로 밖에는 평가하지 않는 부유하고 도도한 가정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Diana and Mary were soon to leave Moor House, and return to the far different life and scene which awaited them, as governesses in a large, fashionable, south-of-England city; Where each held a situation in families, by whose wealth and haughty members they were regarded only as humble dependents, and who neither knew nor sought one of their innate excellences, and appreciated only their acquired accomplishments as they appreciated the skill of their cook or the taste of their waiting-woman.(358)

쏜필드에서 제인은 가정교사로서 페어팩스 부인(Mrs. FairFax)과 정신적 교감을 나누며 교제를 하고, 제자인 아델(Adéle)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평온한 생활은 제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그녀는 생기에 가득 찬 도시와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된다.

나는 지평선 너머 앞을 내다 볼 시력을 갈망했다. 듣기는 했지만 본 적이 없는 붐비는 세계와 도시들, 그리고 생기로 가득 찬 지역들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갈망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지닌 것 보다는 더 실제적인 체험을 갈망했다. 나는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과 사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고 싶었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의 좋은 점과 아델의 좋은 점은 존중했다. 하지만 좀 더 생기에 찬 다른 좋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보고 싶었다. “누가 나를 비난하겠는가?”

I longed for a power of vision which might overpass that limit; which might reach the busy world, towns, regions full of life I had heard of but never seen: that then I desired more of practical experience than I possessed; more of intercourse with my kind, of acquaintance with variety of characters, than was here within my reach. I valued what was good in Mars. Fairfax, and what was good in Adéle; but I believed in the existence of other and more vivid kinds of goodness, and what I believed in I wished to behold. Who blames me?(111)

빅토리아시대에 여성이 미지에 대한 탐구와 열망을 갖는 것은 비난받기에 마땅했다. 제인은 그 당시 여성에게 제한되어 있던 소극적 역할을 비난하며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세상에 나가기를 소망했다. 제인과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던 작가도 자신이 느끼는 현실적으로 제한된 여성의 삶을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풀어낸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매우 차분하려니 하지만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느끼며 남자형제와 똑같이 능력을 기르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분야를 필요로 한다. 엄격한 속박이나 너무 심한 정체는 남자에게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여자보다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남자들이 여자는 푸딩을 만들고, 양말을 짜고, 피아노를 치고, 주머니에 수나 놓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속 좁은 짓이다. 여자가 관습상 여자답다고 규정된 것을 넘어서서 더 배우고자 하고 더 일하고자 한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비웃는 것은 경솔한

짓이다.

> Women are supposed to be very calm generally; but women feel just as men feel; they need exercise for their faculties and a field for their efforts as much as their brothers do; they suffer from too rigid a restraint, too absolute a stagnation, precisely as men would suffer; and it is narrow-minded in their more privileged fellow-creatures to say that they ought to confine themselves to making puddings and knitting stockings, to playing on the piano and embroidering bags. It is thoughtless to condemn them, or laugh at them, if they seek to do more or learn more than custom has pronounced necessary for their sex.(111)

작가인 브론테가 남녀평등 사상을 주창하기 전에 밀(Mill)도 남녀의 본성을 배제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성이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걱정하여 남성들이 여성들의 본성에 간여하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염려이다. 본성적으로 여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불필요한 일이며, 여성들이 할 수는 있지만 경쟁자인 남성들만큼 잘 할 수 없는 일은 경재을 통해서 여성들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16]

제인이 갈망하던 새로운 세계로의 추구는 쏜필드의 주인인 로체스터의 출현으로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된다. 로체스터의 등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왕자의 모습처럼 남성다운 외모로 말을 타고 등장하는데, 예상과 달리 얼음 위로 미끄러져 비명을 지르면서 말에서 낙마한다. 남성인 로체스터가 여성인 제인에게 도움을 받으며 첫 만남이 이루어 졌다는 것에서 두 사람의 대등한 관계가 보여 진다. 고용주와 가정교사로서의 신분적 차이가 있었지만, 제인은 스스로 “급료를 받는 고용인(paid subordinate)"(118)이라고 말하며, 로체스터가 스무살 정도 나이가 많고 경험이 100년 정도 앞서 있지만 동등한 관계라고 주장한다. 로체스터 역시 제인을 여성으로서 남성의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한다.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자신의 방탕했던 시절에 만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며 우월감이 아닌 동등한 감정을 가지게 해 준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게 되고 제인은 로체스터에게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된다. 처음에는 로체스터가 많은 경험을 했다는 간접경험에 대한 갈망이 사랑의 감정으로 변하고 제인은 쏜필드의 생활에

16) John S. Mill, "The Subjection of Women." *On Liberty and other Writings.* Ed. Stefan Collini (London: Cambridge UP, 1989), pp. 119-217.

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로체스터의 편안한 태도는 나를 고통스런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 주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예의로 나를 대해 주는 우정어린 솔직성 때문에 그에게 이끌렸다. 때때로 나는 그가 주인이기보다는 마치 친척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지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게 그의 버릇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 나는 삶에 더해진 새로운 관심사로 인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해서 혈연을 그리워하는 생각도 사라졌다. 초승달처럼 가냘픈 내 운명이 차츰 커져 가는 것 같았고, 생활의 단조로움은 채워졌다. 내 몸의 건강은 좋아졌고 살이 찌고 강해졌다.

The ease of his[Rochester's] manner freed me from painful restraint; the friendly frankness, as correct as cordial, with which he treated me, drew me to him. I felt at times as if he were my relation, rather than my master: yet he was imperious sometimes still; but I did not mind that; I saw it was his way. So happy, so gratified did I become with this new interest added to life, that I ceased to pine after kindred. My thin crescent-destiny seemed to enlarge; the blanks of existence were filled up; my bodily health improved; I gathered flesh and strength.(149)

로체스터는 아름다운 여인 블랑쉬(Miss Blanche)와의 결혼을 가장하여 제인의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여 시험한다. 블랑쉬는 빅토리아 시대의 전형적인 상류층 여성으로서 매우 아름답고 교양을 지닌 숙녀이지만 허식에 가득 찬 오만한 여성이다. 브론테는 블랑쉬와 제인을 비교하며 진정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로체스터는 집시 점쟁이로 속인 채 블랑쉬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제인의 마음을 시험하게 된다. 이 때 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체스터에 대한 열정을 고백하게 된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서 결혼도 남성이 여성에게 구애해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를 제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탈피한다.

저를 자동인형이나 아무 감정도 없는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입속에 넣었던 빵을 빼앗기고 생명수가 든 컵을 빼앗아 내던지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참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작고 예쁘지 않은 여자라고해서 영혼도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저도 당신과 같은 영혼을 갖고 있고 당신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만약 하느님께서 제게 얼마간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재산을 주셨다면 제가 지

금 당신과 헤어지는 것이 괴로운 만큼 당신에게도 저와 헤어지는 것에 대해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당신에게 관습이나 인습이나 육신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 영혼이 당신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마치 우리 두 사람이 무덤을 지나 하느님의 발밑에 서 있을 때처럼 동등해요. 지금도 동등하지만요.

Do you think I am an automaton? - a machine without feeling? and can bear to have my morsel of bread snatched from my lips, and my drop of living water dashed from my cup? Do you think, because I am poor, obscure, plain, and little, I am soulless and heatless? You think wrong! - I have as much soul as you, - and full as much heart! And if God had gifted me with some beauty and much wealth, I should have made it as hard for you to leave me, as it is now for me to leave you. I am not talking to you now through the medium of custom, conventionalities, nor even of mortal flesh- it is my spirit that addresses your spirit; just as if both had passed through the grave, and we stood at God's feet, equal- as we are!(257)

이런 제인의 태도에 로체스터는 “내 신부는 여기 있어, 나와 동등한, 나와 똑같은 존재가 여기 있으니까. 제인, 결혼해 주겠지?”(258)라며 동등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청혼을 하게 되고 둘은 약혼을 한다. 그러나 동등함이라는 인정에도 불구하고 로체스터는 약혼기간 동안 제인을 자신에게 맞는 존재로 대하고 변화시키려 한다. 자신의 요구대로 제인에게 “인형처럼 옷을 입히거나, 보석으로 치장하여, 시계줄에 매인 시계처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고”(263)한다. 이런 대우는 제인이 마치 노예와 같다는 기분을 들게 했고 그녀는 자신의 주체성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게 된다. 제인은 로체스터가 결혼을 앞두고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사주며 만족스러워 할 때 굴욕감으로 얼굴을 붉히며 사회적 우위에 있는 로체스터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저는 단지 편한 마음만을 갖고 싶어요. 당신은 셀린느 바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녀에게 주었다는 다이아몬드니, 캐시미어에 관해 하신 말씀을. 저는 당신의 영국인 셀린느 바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델의 가정교사로서 계속 일 할 거예요. 저는 그것으로 제 식사와 살 곳을 마련하겠어요. 그 밖에도 매년 30파운드의 수입이 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옷도 사 입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다만 당신의 호의만을 원해요.

I only want an easy mind, sir. Do you remember what you said of Celine

Varens?--of the diamonds, the cashmeres you gave her? I will not be your English Celine Varens. I shall continue to act as Adele's governess; by that I shall earn my board and lodging, and thirty pounds a year besides. I'll furnish my own wardrobe out of that money, and you shall give me nothing but___.(274)

제인은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로체스터에게 자신의 인격을 존중해 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그런 태도는 로체스터에 대한 점점 커지는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 우상화로 변한다.

내 미래의 남편은 나의 전 세계, 세계 그 이상의 것으로 내게 거의 천국에 대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일식이 인간과 커다란 태양 사이에 가로막듯 나와 모든 신앙의 관념 사이에 가로막고 서 있었다. 요즘 나는 하느님의 창조물을 우상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My future husband was becoming to mo my whole world; and more than the world; almost my hope of heaven. He stood between me and every thought of religion, as an eclipse intervenes between man and the broad sun. I could not, in those days, see God for his creature: of whom I had made an idol.(279)

제인과 로체스터의 결혼이 다가오고, '제인 로체스터'라는 이름을 들으며 제인은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결혼식 날 로체스터의 숨겨진 미친 아내인 버사의 존재가 드러나며 제인과 로체스터의 결혼은 저지된다. 버사는 로체스터의 미친 아내로 3년간이나 3층 다락방에 감금되어 있던 존재이다. 로체스터는 버사를 음탕하고 천박한 여성으로 묘사한다.

아내의 성질이 나와는 전혀 맞지 않았고 그녀의 취미는 내게는 불쾌한 것이었고 그녀의 마음씨는 평범하고 열등하고 편협하고 더구나 좀 더 고상한 데에 인도되거나 좀 더 넓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이상하게도 불가능 했소. 그녀의 지성은 얼마나 저능하고 얼마나 끔찍한 성질을 지니고 있었던지! 그 성질이 나에게 미친 저주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던지! 수치스러운 어머니의 딸인 버사 메이슨은 폭음을 하는 동시에 음탕한 아내에게 묶인 남자에게 따르기 마련인 모든 끔찍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저주 속으로 나를 끌고 다녔던 거요.

I found her nature wholly alien to mine; her tastes obnoxious to me; her cast of mind common, low, narrow, and singularly incapable of being led to anything higher, expanded to anything larger. What a pigmy intellect she had--and what giant propensities! How fearful were the curses those propensities entailed on me! Bertha Mason,--the true daughter of an infamous mother,--dragged me through all the hideous and degrading agonies which must attend a man bound to a wife at once intemperate and unchaste.(311)

낮은 웃음소리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던 버사가 제인의 결혼식 전 어느 날 결혼 베일을 두 갈래로 찢어버리며 제인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무시무시하고 소름끼치는 얼굴, 잔인한 얼굴, 무서운 유령, 흡혈귀 같았다”(288)는 버사의 모습은 제인이 어린 시절 리드가의 붉은 방에 갇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보았던 “제정신이 아닌, 반은 요정, 반은 귀신”(13)의 모습과 연결된다. 다시 말하면, 제인과 버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분신인 것이다.

이런 광기를 가진 버사는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 제인의 또 다른 분신으로 언급되었다. 글쓰기에 있어서도 남성적인 권위가 지배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글을 써야했던 "여성작가들이 열등감에 따르는 분열의식, 분노, 불안감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끔찍한 인물에 투영하거나 자신과 작중 여주인공에게 어두운 분신을 창조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부장제 문화를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동시에 이를 수정하였다"[17] 고 주장하였다.

그러는 한편 천사와 같은 이상화 된 여성의 뒤에는 순종적인 역할을 거부하는 마녀가 숨어있으며, 버사와 같은 인물은 제인의 내면에 숨겨진 로체스터의 속임수에 대한 분노와 반항의식의 표현이다. 로체스터가 집시로 변장하는 속임수에 대한 제인의 억압된 분노는 버사의 끔찍한 비명소리와 그보다 더 끔찍한 메이슨에 대한 공격이다. 제인의 결혼에 대한 불안 특히 “드레스를 입고 베일을 쓴” 신부로서 자신의 모습에서 느끼는 소외감의 두려움은 “잠옷인지 시트인지 수의인지 구분할 수 없는 하얗고 정돈”된 드레스를 입은 버사의 이미지로 객관화되었다.[18]

제인은 로체스터와의 열정에 대해 버사에게 죄의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며,[19]

17) Gilbert & Gubar, p. 79.
18) Ibid.
19) Terry Eagleton. *The Myths of Power: A marxist Study of the Brontës* (London & Basingstoke: Macmillan, 1975), p. 30.

버사는 19세기 사회에서 해방된 여성의 상상력을 대표하는 제인의 분신이며,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고 남성과 같은 욕구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인의 생각은 1840년대의 영국에서는 거의 광기와 마찬가지였다.[20] 버사가 인습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감정을 분출시키고자 하는 제인의 욕구의 결과에 대한 경고의 기능을 하며, 버사가 제인에게 경고한다는 것은 제인 자신이 버사처럼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21]

이에 반해 쇼월터는 "버사가 제인의 일면인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즉 여성의 성은 감금되고 처벌받아야 하는 위험한 힘이라는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한다.[22] 버사는 길버트와 구바의 말대로 여성 억압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제인이 반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면화된 두려움이다. 이때 제인의 두려움은 로체스터가 비난하는 대로 버사의 도덕적인 결점을 받아들이고 그녀를 짐승으로 여기는 데서 드러난다. 더욱이 버사가 크레올 출신인 것은 그녀가 제인의 문화 밖에 존재함을 뜻하고, 이런 문화적 차이는 그녀를 더욱 쉽게 물화시킨다. 이처럼 버사의 고립과 광란이 사회규범에 대한 반항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경고로 작용함으로써, 브론테는 성차별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동시에 침묵할 수 있게 된다. 버사를 통해 작가의 여성의 성에 대한 양면성이 보여 진다.[23]

버사의 출현은 제인이 로체스터의 정부로서 희생적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방지해 주는 커다란 사건이었다. 자신이 거부하던 그 당시 전형적 여성의 삶으로 젖어들던 제인에게 다시 한번 자아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준 것이다.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끊임없이 자신과 살 것을 애원하며 매달리고, 제인은 정부이지만 경제적 혜택과 그의 보호아래서의 편안한 삶과 다시 시작되는 가난하지만 자아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삶 속에서 고민한다. 어린 시절부터 제인에게 가난은 두려움의 존재로 리드가에서 모멸을 당하며 억압된 삶을 살았지만 그 곳을 떠나 가난을 택할 용기는 없었다. 가난을 택함으로 자유를 얻을 만큼 영웅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고민은 로체스터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정부를 두었던 자신의 태도가 아

---

20) Rich, p. 98-99.

21) Helen Moglen, "The End of Jane Eyre and the Creation of a Feminist Myth." *Jane Eyre.*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p. 126.

22) Showalter, p. 121.

23) 조애리, 「Charlotte Brontë 연구: 여성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pp. 149-151.

닌 그녀들을 경멸하는 태도에서 확고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비굴한 생활 방식이었소.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고 싶진 않소. 정부를 산다는 것은 노예를 사는 것 다음으로 나쁜 것이었소. 이 둘은 흔히 천성적으로 열등하고 지위상 항상 열등하오. 열등한 자들과 친근하게 산다는 것은 타락해 간다는 거지. 지금 나는 셀린느, 자친타, 클라라 등과 함께 보낸 그 때의 회상을 증오하오.

It was a grovelling fashion of existence: I should never like to return to it. Hiring a mistress is the next worst thing to buying a slave: both are often by nature, and always by position, inferior: and to live familiarly with inferiors is degrading. I now hate th recollection of the time I passed with Céline, Giacinta, and Clara.(317)

제인은 로체스터의 고백에서 자신도 결국 이전의 정부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그러한 말의 진실성을 믿을 수 있었다. 또한 그 말에서 확실한 추리도 할 수 있었다. 즉 내가 어떠한 구실로라도, 어떠한 자기 정당화에 의해서라도, 어떠한 유혹에 의해서라도, 그 가엾은 여자들의 대리로 들어앉을 정도로 완전히 나를 잊고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왔던 모든 교훈을 잊고 지낸다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지금 그이 마음에서 그 여자들의 추억을 더러운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감정으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I felt the truth of these words: and I drew from them the certain inference, that if I were so far to forget myself and all the teaching that had ever been instillde into me as-under any protext - with any justification-through any temptation - to become the successor of these poor girls, he would one day regard me with the same feeling which now in his mind desecrated their memory.(317)

내면적으로 성숙해진 제인은 자신의 주체성을 세우고 스스로를 돌보고 존중하기 위해 로체스터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쏜필드를 떠난 제인은 굶주림과 피로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며 자아의식을 성숙시켜 줄 마지막 공간인 위트크로스(whitcross)에 다다른다. 위트크로스에서 제인은 그녀에게 따뜻한 피난처를 제공해 준 리버스 가의 3남매인 다이아나, 메어리 그리고 세인트 존을 만나게 된다. 리드 가의 잔혹한

사촌들과 달리 다이아나와 메어리는 온화하고 자상한 성품의 소유자들로 제인을 편견 없이 보살펴준다. 이들과의 교재를 통해 제인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해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해 간다.

나는 다이아나와 메어리가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들이 허락해 주면 언제 어디서나 그들을 도울 수도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교제에는 기운이 되살아나게 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취향과 감정과 신조가 완전히 일치할 때 비롯된 즐거움이었다.

I could join with Diana and Mary in all their occupations; converse with them as much as they wished, and aid them when and where they would allow me. There was a reviving pleasure in this intercourse, of a kind now tasted by me for the first time - the pleasure arising from perfect congeniality of tastes, sentiments, and principles.(356)

이후 이들이 제인의 사촌임이 밝혀지며 Reed 가에서 사촌들에게 받은 모멸감과 상처는 치료되게 된다. 제인은 이 곳에서 또 다른 가부장적 태도를 가진 청교도적 희생과 금욕주의를 지키는 세인트 존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로우드 학교의 브로클허스트처럼 위선적이지는 않지만 기독교의 사랑을 배제한 순종과 희생, 금욕만을 우선으로 여기는 시골 교회의 목사이다. 세인트 존은 칼빈교리인 하나님의 선택, 숙명, 정죄 등의 위압적인 말로 제인을 억압해 가고, 종교적으로 사랑으로 평온해지는 마음 대신 슬픔만을 느끼도록 한다.

설교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 사실 말투와 목소리의 억양은 마지막까지 조용한 설교였다. 그러나 강력하지만 엄격하게 억누르고 있는 열의는 곧 명확한 억양 속에서 나타났고 힘찬 언어로 즉각 표현되었다. 그것은 압축되고 간결해지고 통제되어 갔다. 설교자의 힘에 놀라고 가슴을 떨렸으나 어느 쪽도 부드러움은 없었다. 설교 전체에 걸쳐서 이상한 비통함이 있었고 마음을 위안하는 부드러움은 없었다. 칼빈교리 - 하느님의 선택, 숙명, 정죄 - 에 대한 엄숙한 암시가 자주 언급되었지만 그때마다 그 말은 최후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가 설교를 마쳤을 때 나는 그의 설교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교화되는 대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It began calm - and indeed, as far as delivery and pitch of voice went, it was

calm to the end: an earnestly felt, yet strictly restrained zeal breathed soon in the distinct accents, and prompted the nervous language. This grew to force - compressed, condensed, controlled. The heart was thrilled, the mind astonished, by the power of the reacher: neither was softened. Throughout there was a strange bitterness: an absence of consolatory gentleness, stern allusions to Calvinistic doctrines - election, predestination, reprobation - were frequent: and each reference to these points sounded like a sentence pronounced for doom. When he had done, instead of feeling better, calmer, more enlightened by his discourse, I experienced an inexpressible sadness.(358)

제인은 가난한 소작농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으로 경제력을 가진 독립적 여성의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쏜필드에서 지녔던 강인한 정체성을 지니고 만족감을 느끼는 대신 교육받은 지적인 숙녀로서 무지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크나큰 기쁨이 아닌 그 날 그 날 살아가는 데 적응할 정도의 삶을 기대한다.

세인트 존은 아름답고 부유한 잉그램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녀가 선교자의 아내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며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부정하려 한다. 그리고 희생과 근면성이 강한 제인에게 의무감을 내세워 청혼을 한다. 그는 제인에게 애정이 아닌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남편에 대한 봉사와 순종만을 강요하며 자신의 소유물로서 아내가 되기를 요구한다.

하느님과 자연은 당신을 전도사의 아내로 삼기로 작정했소. 하느님과 자연이 당신에게 부여해 준 것은 용모가 아니라 정신적 재능이오. 당신은 애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오. 당신은 전도사의 아내가 되어야 하오 - 될 것이오. 당신은 내 것이 될 것이오. 나는 당신을 요구합니다.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요.

God and nature intended you for a missionary's wife. It is not personal, but mental endowments they have given you: you are formed for labour, not for love. A missionary's wife you must - shall be. You shall be mine: I claim you - not for my pleasure, but for my Sovereign's service.(409)

로체스터가 애정을 바탕으로 제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억압하려 했듯이 세인트 존은 애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세인트 존은 제인이 “온순하고 부지런하고 욕심이 없고 충실하고 늘 변함없고 용감함”을 자신의 아내가 될 조건으로 보았다. 제인의 감정은 상관없이 자신의 선교사적 야망만을 위해 그와 결혼 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이처럼 제인이 만난 두 남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된 결혼관을 가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빅토리아 시대 모든 남성들이 가진 여성을 소유물로만 여기는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것이다. 제인은 세인트 존을 아내가 아닌 동료나 누이로서 따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인트 존은 계속해서 제인이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교육해 나갔고 제인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참으며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며 지내게 된다.

> 나로서는 그를 매일 더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 본성의 반을 부정해야만 하고 내 능력의 반을 억제해야만 했다. 그리고 내 취향을 원래의 소질에서 억지로 버리고 본성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강제로 추구해야함을 날마다 더욱더 느꼈다.

> As for me, I daily wished more to please him: but to do so, I felt daily more and more that I must disown half my nature, stifle half my faculties, wrest my tastes from their original bent, force myself to the adoption of pursuits for which I had no nature vacation.(405)

제인은 자신을 “쓸모 있는 도구" 로만 여기는 존과의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존은 애정을 중시하는 제인을 강력히 비난한다. 제인은 애정이 없는 결혼은 죽음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세인트 존은 그런 제인을 여성답지 않은 거짓된 생각이라며 지배하려 한다. 육체적 멍에는 참을 수 있지만 마음과 영혼만은 자유롭기를 원하는 제인은 자신의 열정이 속박당하고 억압받고 억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대등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던 제인은 세인트 존의 강인한 정신적 의지에 그를 존경하고 지배를 받고 싶다는 유혹을 가지게 된다. 자유를 원하면서도 종교적인 힘에 굴복한 것이다.

> 나는 세인트 존에게 존경심을 느꼈다. 그 존경심은 그 자극이 내가 그처럼 오랫동안 피해오던 곳으로 대번에 나를 밀어 넣을 만큼 힘찬 것이었다. 나는 그와 싸우는 것을 이젠 중지하라는 유혹을 느꼈다. 그의 의지의 격류에 밀려가서 그의 생활의 심연에 들어가 거기에 나 자신이 빠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I felt veneration for St. John - veneration so strong that is impetus thrust me at once to the point I had so long shunned. I was tempted to cease struggling with him - to rush down the torrent of his will into the gulf of his existence, and there lose my own.(425)

온갖 시련과 억압속에서 지켜온 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세인트 존과의 결혼으로 한 순간에 무너질 상황에서 제인은 “자신의 갈 길을 보여 주세요”(369)라고 기도한다. 그 기도 중 “제인! 제인!"이라는 로체스터의 목소리인 초자연적인 소리를 듣게 되고 세인트 존과 이별하고 다시 한번 자아를 찾게 된다.

리드가와 로우드 학교, 쏜필드에서 형성되고 인식되었던 제인의 자의식은 위트크로스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세인트 존과의 이별은 제인의 정신적인 존재와 육체적인 존재 사이에서의 갈등을 종결짓는 이정표가 된다. 그동안 거듭해온 이별들이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자아분열의 위기감을 느끼도록 했지만, 그 때마다 제인의 자아는 전보다 더욱 통합되고 굳건해지는 단련을 겪은 것이다.[24] 제인은 정신과 육체적으로 조화된 독립적이고 성숙한 자유로운 의지를 지니게 된 것이다.

24) Moglen, p. 57.

Ⅴ. 남녀평등 관계의 확립을 통한 여성의 승리

제인은 로체스터와 재회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생긴다. 제인은 마드리드에 있는 삼촌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아 경제적으로 독립된 여성이 되고, 리버스 가의 3남매와 사촌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로체스터의 광기어린 아내 버사가 저택에 화재를 내고 죽었다. 그리고 로체스터가 버사를 구하려다 불구가 된 것이다.

제인은 초자연적 소리에 이끌려 쏜필드로 돌아와, 버사가 저택에 화재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버사는 죽고 그녀를 구하려던 로체스터는 팔이 절단되고 눈이 먼 불구의 몸이 된 것을 알게 된다. 제인이 로체스터와 결혼을 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버사의 죽음은 불가피 한 것이었고, 그녀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 상징적 해석이 있다. 버사는 "제인의 종속과 로체스터의 지배의 상징인 쏜필드를 제인 대신 태워줄 뿐만 아니라, 그를 불구로 만듦으로서, 제인의 숨겨진 적대감"[25]을 표현해준다. 제인이 로체스터와 성공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욕망의 정죄로 버사가 죽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정신적 존재인 헬렌이 그랬듯이 버사도 순교함으로서 제인을 보다 자유로운 존재"[26]로 만든 것이다.

허구적인 타자인 "버사가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함으로써 제인이 영국 소설상 페미니스트 개인주의의 여주인공이 되었고, 이것은 제국주의의 인식적 폭력의 알레고리"로 볼 수 있다. 또 "그녀의 죽음은 식민지 개척자의 사회적 임무를 찬양하기 위하여 식민지인을 제물로 바친 것"[27]이다.

또한 제인의 유산 상속은 변화 중 큰 의미를 차지한다. 리드가와 로우드에서 가난한 고아라는 이유로 멸시와 냉대를 받아야만 했고 로체스터가 금전으로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자 심한 굴욕감을 느꼈던 제인은 경제적 무능력의 고통을 느껴왔다. 그러나 삼촌으로부터의 유산 상속이 제인의 로체스터에 대한 굴욕감을 사라지게 하고 경제적 독립은 그와의 결혼에 이르는 장애물을 없애준다. 여성의 자아를 찾는 과정이 결국 행복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결혼에 이르

25) Gilbert & Gubar, p. 360.
26) Showalter, pp. 112-124
27) Spivak, p. 251.

는 결말 때문에 제인이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안주하고 말았다.

브론테의 작품에는 “19세기 영국 사회의 주요 갈등인 진보적인 산업 부르조아 계급과 보수적인 토지 젠트리 계급의 대립”이 나타나 있으며, 제인이 세인트 존을 떠나 로체스터와 결혼한 것은 “사회의 계급 제도를 인정하고 젠트리 계급의 남성인 로체스터보다 우위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안정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28]

그렇지만 브론테는 제인과 로체스터를 대등한 존재로서 평등결혼이란 결말로 이끌어 낸다. 실제로 로체스터는 가부장적 권위의 모습과는 먼 ‘우리에 갇힌 독수리’이며,‘눈 먼 삼손’이었다. 로체스터가 불구의 몸이 됨으로써 남성의 가부장적인 힘이 상실 된 것이다. 로체스터는 시력을 잃고 자신의 시계를 제인에게 지니라고 하며 과거 자신이 제인을 시계줄과 같이 소유하려 했던 생활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남성의 시각이 아닌 제인의 눈을 통한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변화한 개념을 여러 표현을 통해 나타낸다.

남성에게 여성이란 존재로 희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애정을 가진 봉사하는 삶으로서 제인은 로체스터와 결혼을 한다. 자신과의 결혼이 희생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로체스터에게 제인은 희생이 아닌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이야기 한다.

> “희생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희생한다는 말인가요? 당신이 단지 주는 자로, 보호자로서의 역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마다하며, 자신만만하게 독립 상태에 있었을 때보다도,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금 말이에요.”

> 'Sacrifice! What do I sacrifice? ' Which are none, sit, to me. I love you better now, when I can really be useful to you than I did in your state of proud independence, when you disdained every part but that of the giver and protector.'(453)

제인과 로체스터의 결혼은 유산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독립성을 갖게 된 제인이 자신의 의지로 희생이 아닌 사랑으로 로체스터를 선택한 불평등이 아닌 완전한 화합인 것이다.

---

28) Eagleton, p. 4

나는 지금 결혼하지 10년이 되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나는 내 자신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가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나도 내 남편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를 완전히 신뢰한다. 그 역시 나를 완전히 신뢰한다. 우리는 성격적으로 꼭 맞았다. 그것은 완전한 화합이었다.

I have now been married ten years. I know what it is to love entirely for and with what I love best on earth. I hold myself supremely blest - blest beyond what language can express: because I am my husband's life as fully as he is mine. All my confidence is bestowed on him, all his confidence is devoted to me: we are precisely suited in character - perfect concord is the result.(459)

완벽한 화합을 통해 브론테는 당시대 남성과 여성의 구별되어진 성역할을 동등한 관계로 변화시켰고 평등 결혼을 제시하여 이상적인 결말을 보여준 것이다. 길버트와 구바는 이들의 결혼에 관하여 신체적으로 온전하였을 때는 사회적 가면 때문에 상대를 제대로 볼 수 없었으나, 로체스터가 시력을 잃게 된 후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더욱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29]

제인 에어의 결말에서는 가부장적 지배의 중심에 있었던 주변인물들의 삶과 제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비교하여 보여진다. 세인트 존은 청교도적 사상에 집착하여 인도로 건너가 인류를 위해 일하고 있다. 고역을 치러오며 자신의 확고한 보답인 불멸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으며 거의 완성에 이르고 있다는 편지에서 그가 하늘의 면류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드 가는 호주인 존 리드가 방탕한 생활로 거의 전 재산을 날리고 객사했고 리드 부인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또 다른 가부장적 인물인 브로클허스트는 학교의 전염병 때문에 주변에 그의 행실이 알려지고 권한은 축소된다.

브론테는 가부장적 사회의 붕괴를 여실히 보여주며 그 대안으로 남녀평등 문화를 제시한 것이다. “제인의 평등한 결혼은 제인의 인생의 완성이다. 적어도 제인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결혼이며, 단순한 해결이나 목표의 결혼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의 성장을 방해하고 축소시킨다는 의미에서의 가부장적인 결혼이 아닌 여성의 자기 창조의 연장”이며,[30] 여성의 승리인 것이다.

29) Gilbert & Gubar, pp. 368-369

Ⅵ. 페미니즘과 제국주의적 한계

1960년대 이후 여성의 주체적 자아를 찾고자 하는 여성의식이 대두되면서 문학 작품 속에 투영된 여성상에 대한 재조명과 재해석의 작업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러한 비평을 페미니즘이라 하며 남성 중심의 문학 연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여성 중심적 관점으로 문학 작품들을 재평가하게 된다.

1970년대 초반 서구의 페미니즘 비평은 남성 작가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을 비평하는 여성 이미지 비평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밀렛은 여성을 압박하는 것은 가부장제로써 여성의 해방을 위해 남성 우위의 성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의 전통적인 사회화 과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성의 혁명을 주장하였다. 그녀는 가부장제 사회와 문학에 나타는 성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추고 문학작품에서 여성의 종속이 어떻게 합리화되고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며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성 이데올로기를 문학작품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어 여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투쟁하도록 하였다.[31]

여성 이미지 비평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 자체로 관심을 돌려 여성 중심적 시각으로 정당한 가치를 매기고, 남성 문학과 구별되는 여성 문학의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여성비평이 주를 이루게 된다.

18세기와 19세기에 여성의 정치, 경제, 교육적 성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는데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불평등한 상황을 인식한 여권 운동가들은 여성들에게 자율성을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런 현실적 배경에서 작가인 브론테가 여권운동의 영향을 받아 쓴 『제인 에어』에서 억압적인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당당하게 획득하는 용기 있고 강인한 여성상이 제인을 통해 등장한다.

제인이 성장해가면서 주체성 획득을 위한 저항에서 볼 수 있는 페미니즘적 사고와 더불어『제인 에어』에서는 식민지와 연관된 소재와 사건들이 작품 전체에 은유적으로 표현된다. 제인은 19세기 가부장적 사회와 식민지의 여성을 동일시하는 제국주의 사회 속에서 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에게는 문명화라는 사

30) Rich, p. 470.
31) Millet, pp. 50-54.

명감으로 미화된 식민지 지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제인 에어』에서 백인 여성들은 유색인종과 비교되며, 남성들에 비해 열등한 범주로 묘사되어진다. 리드가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가난한 고아 제인은 하인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진다. 폭력을 일삼는 미래의 주인인 존 리드에게 대항하며 제인이 "고약하고 잔인한 녀석! 넌 살인자 같아. 너는 노예감독, 로마황제 같아."(10)라고 외친다. 이 장면에서 노예에 대한 언급이 시작된다. 제인은 식민지 여성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들을 동정하지만 자신은 그들과 분리시키며 우월감을 드러낸다. 로체스터가 제인을 “터키왕의 후궁 미녀들 전부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자 자신을 그런 여성들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비교하지 말라며 로체스터가 “노예 매매를 하는 동안 자신은 자유를 설교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리”라고 주장한다.(273) 이런 제인의 말은 식민지 여성들을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문명화 시키는 역할은 우월한 유럽인들이 해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제인은 시골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곳의 농부들은 “유럽의 다른 농부들에 비해 교육도 다 많이 받고 예의가 바르며 가장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고 제인이 가르치는 소녀들은 프랑스나 독일의 농촌 여성들과 비교하여 고상하고 겸손하며 견문이 넓은 훌륭한 여성들”(396)이라고 언급한다. 제인은 영국 국민들을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비교하며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영국 중심주의 사고방식을 지닌 채 타 인종을 배척하는 자세를 보인다. 이런 자세는 로체스터에 의해 감금된 전처인 버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로체스터에 의해서만 서술되어지는 광기어린 버사의 모습을 바탕으로 제인 역시 암묵적으로 그녀를 동물처럼 취급하고 있다.

> 무시무시하고 소름이 끼치는, - 아아, 전 이제껏 그런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보통과는 다른 얼굴 빛깔 - 그것은 야만인의 얼굴이었어요, 아, 그 빨간 눈은 돌아가고 그 꺼멓게 부풀어 오른 얼굴 - 전 제발 잊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주빛이었어요. 입술은 부풀어서 검어졌고 이마엔 주름이 잡혀 있었고 눈썹은 충혈된 눈 위에 넓게 뻗쳐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연상시켜 주었는지 말씀드릴까요? 저 끔찍한 독일 도깨비 - 흡혈귀예요.
>
> Fearful and ghastly to me, - oh, sir. I never saw a face like it! It was a

discoloured face - it was a savage face. I wish I could forget the roll of the red eyes and fearful blackened inflation of the lineaments. This, sir, was purple : the black eyebrows widely raised over the blood - shot eyes. Shall I tell you of what it reminded me? Of the foul German spectre - the Vampyre.(288)

로체스터는 많은 외국 여인들과 관계를 가져왔지만 제인이 가장 가치 있다고 주장하며 남성으로서 자신이 행한 향락은 버사가 가진 음탕함과는 다르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이는 여성들을 열등하게 여기는 가부장적 표현이고, 외국여인을 열등하게 보는 자민족 중심주의인 것이다. 로체스터에게 제국주의적 면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버사와의 관계에서이다. 로체스터에 의해 버사는 크레올 즉 유색인종이고 광기에 찬 가문이여서 그녀 역시 비정상이라고 표현된다. 로체스터에게 유리한 면으로 서술되어지는 버사의 이야기에서 광기어린 버사는 동물의 모습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녀를 돌보는 로체스터는 도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미친 여자는 달려들어 로체스터 씨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그의 뺨을 물었다. 두 사람의 격투가 벌어졌다. 그녀는 몸집이 큰 여자로 키는 거의 남편과 같았고, 몹시 뚱뚱했다. 그 여자는 이 격투에서 어른 남자의 힘을 과시했다. 그처럼 늠름한 로체스타 씨도 몇 번이나 목이 졸릴 뻔했다. 일격으로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때리지는 않았다.

The lunatic sprang and grappled his throat viciously, and laid her teeth to his cheek: they struggled. She was a big woman, in stature almost equalling her husband, and corpulent besides: she showed virile force in the contest- more than once she almost throttled him, athletic as he was. He could have settled her with a well-planted blow; but he would not strike.(298)

그러나 버사의 광기는 모두 로체스터의 이야기로만 증명되었고 그로 의해 버사는 서인도 제도 출신의 미친 여자로 여겨진다. 버사는 다락방에 갇혀지게 되는데 그 죽음마저도 광기로만 치부된다. 로체스터는 버사와 대조를 이루는 순수한 영국 여인의 모습으로 제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는데 이는 성적, 계급적 차이 때문이다. 제인은 자신의 상황을 군주에게 지배당하는 노예로 비유하는데 여기에서도 제국주의적 요소가 엿보인다.

내 주인인 동시에 애인인 그의 눈과 다시 부딪칠 용기가 났다. 그 눈은 내가 얼굴과 시선을 피하고 있었는데도 집요하게 내 눈을 찾고 있었다. 그는 웃었다. 그 미소는 회교도의 군주가 그의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시킨 노예를 기쁨과 사랑 속에서 볼 때의 그것으로 생각되었다.

I ventured once more to meet my master's and lover's eye; which most pertinaciously sought mine, though I averted both face and gaze. He smiled; and I thought his smile was such as a sultan might, in a blissful and fond moment, bestow on a slave his gold and gems had enriched.(273)

제인이 쏜필드 저택을 벗어나 도착한 위트크로스에서 만난 목사인 세인트 존 역시 제국주의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다. 그는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청교도주의를 바탕으로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버리고 내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세인트 존은 제인에게 함께 인도로 가 미개한 식민지인들의 문명화를 위해 힘쓰자고 한다. 그의 이면에는 기독교 정신을 내세운 식민지를 지배하려는 소망이 숨겨져 있다. 선교사로서 원주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여, 원주민들의 문화를 없애고 영국에 종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인이 세인트 존에게서 거부하는 것은 유럽의 지식과 인간성을 인도인에게 주입하자는 제국주의적 기획이 아니라 그의 강제적 중재와 그가 원하는 아내 역할이다. 세인트 존의 아내로서가 아니고 “자유롭게 간다면, 기꺼이 인도에 가겠어요.”(415) 라고 제인이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존과 마찬가지로 인도인을 문명화하는 제국주의 기획에 매력을 느낀다. 즉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제인 역시 교육을 통해 유럽의 이미지에 맞춘 새로운 인도 여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32]

19세기 서구인들은 모든 중심이 서구에 있다고 생각하고 식민지의 문화는 미개하고 타락한 것으로 치부하며 문명화를 내세우며 그들을 지배하려 했다. 『제인 에어』의 등장인물인 제인, 로체스터, 세인트 존 역시 영국 출신의 서구인으로서 제국주의의 원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제인 에어』는 제국주의가 영국인의 삶에 내포된 정도를 보여주었고 가부장적

32) 조애리, 「제국과 여성 :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페미니즘 시각에서 영미소설 읽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pp. 116-118.

사고와 제국주의적 지배의식을 가진 남성들의 모습을 통해 피식민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었다. 브론테는 『제인 에어』속에서 제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평등결혼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배경으로 식민지와 그곳에서 지배받고 있는 유색인종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단지 식민지가 유럽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부속물로서 표현하였을 뿐 주체적 존재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제인 역시 남성들의 지배와 억압에 대해서는 저항하며 식민지 여성들의 삶을 공유했지만 내면에는 제국주의적 지배의식을 가졌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Ⅶ. 결론

19세기 빅토리아여왕 시대 영국의 사회상은 남성 위주의 여성에 대한 억압과 희생이 최고로 강조된 시기였다. 당시에 여성은 가정의 천사로서 순결하고 정숙한 모습을 갖추어야 했고 성적, 계급적, 경제적으로 억압 받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순종과 남성에 대한 의존적 태도만이 여성이 가진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브론테의 『제인 에어』는 독립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준 작품이었다. 브론테는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것은 사회가 결정지어 놓은 것임을 제인의 저항으로 보여 주었다. 여성 작가로서 브론테는 제인을 당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과는 다른 자유롭게 독립적인 성격의 여성으로 표현하였다. 제인은 가난한 고아였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강하고 용기있는 여성이었다.

브론테는 『제인 에어』에서 "당대의 전체적인 억압구조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강하고 용기있게 타파"[33]하고자 하였으며, "가정교사에 대한 사회적 개선책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한 여성론적인 작품"이며, "남성 중심적인 세계에 대하여 성적 그리고 계급적인 면에서 대항하는"[34] 여주인공을 등장 시켰다.

빅토리아 시대의 순종적 여성상과는 거리가 먼 독립적이고 정체성을 가진 제인은 남성위주의 권위적 세계였던 리드가에서 순응이 아닌 분노와 저항으로 여성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 후 로우드학교에서는 검소와 순종을 내세운 여성답고 고아에 알맞은 교육을 받으며 또 다른 억압에 처하게 되는데 제인은 청교도주의의 모순과 가부장적 억압을 인식하며 그에 순응하지 않고 감정을 분출한다. 이 곳에서 헬렌과 템플선생이라는 그녀의 정신적 동반자들과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고 반항적이기만 하던 그녀의 의식이 한 단계 성숙되게 된다.

성년이 된 제인은 결혼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 자신의 의지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만들려는 그

---

33) Raymond Williams, "Charlotte and Emily Brontë," *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Frogmore: Paladin, 1974), p. 52.

34) Richard V. Chase, "The Brontë, or Myth Domesticated," *Forms of Modern Fiction*, Ed. William V. O'Conno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48), p. 468.

당시 결혼이라는 관문 앞에서 남성의 지배의식에 저항하며 대등한 관계로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노력한다. 가부장적 지배와 중혼이라는 위기에 처한 제인은 버사의 출현으로 자아 정체성의 상실을 피하게 된다. 페미니즘 비평가들에 의해서 버사는 제인이 표출하지 못하는 감정을 대신 나타내 주는 제인의 분신으로 가부장적 권위에 대항하는 인물로 표현된다.

위트크로스에서 제인은 또 다른 남성적 억압의 존재인 종교를 내세워 여성에게 희생과 순종, 그리고 봉사만을 강요하는 세인트 존을 만나게 된다. 가부장적인 왜곡된 결혼관에 저항하며 자신의 의지를 표출한 제인은 더욱 주체적 여성이 되고 로체스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평등한 결혼을 하게 된다. 경제적 독립을 한 제인과 불구가 된 로체스터와의 결혼은 브론테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위주의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문제의 대안이라고 보여진다.

여러 비판과 한계들에도 여성은 주체적 의지 없이 순종적이고 남성의 소유물로만 여겨지던 그 당시 사회에서 제인이 보여준 자유에 대한 의지, 평등한 관계를 위한 부단한 노력은 커다란 성과로서 평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제인 에어』안에 담긴 제국주의적 한계를 간과할 수는 없다. 19세기의 영국은 백인 우월주의적 사고로 문명화라는 미명아래 식민지 국가를 지배하던 시기였다. 그런 배경에서 문학이 당시의 지배적 원리를 반영하고 내포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유럽인들의 식민주의화는 제국 대 식민지, 백인 인종 대 다른 인종, 지배자와 피지배자와 같은 이분법적 대립을 만들어 냈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제인은 주체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으로 보여졌지만, 타인종과 동일시되기를 거부하고, 버사를 암묵적으로 묵인하며 식민지인들의 문명화를 위해 일하기를 바라는 그녀에게서 제국주의적 사고가 드러난다.

제인은 로체스터나 세인트 존과 같이 직접적으로 식민지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식민지인들과 동일시 여기고 억압하려는 남성들에게 그들과는 정신적으로 다른 우수성을 지녔다는 백인 우월주의적 사고를 드러낸다. 식민지 여성 버사는 미친 인물로 여겨져 감금되어지는데 그런 면은 제국주의적 원리에 사로잡힌 영국인들에 있어서 버사가 자신들의 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사는 식민지 여성으로서 영국인들에 눈에는 타자의 이미지로 백인 우월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미친 동물로 표현된 것이다. 인종차별주의를 가지고 영국인 중심주의를 가진 로체스터와 제국주의적 성향을 선교 사업으로 위장하는 세인트 존의 모습에서

도 『제인 에어』가 제국주의적 원리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체스터는 제인의 순수함에 매혹되는데 이런 점을 다른 인종들과 대비시킨다. 그가 만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여자들보다 제인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예전에 사귄 외국 여자들은 남자를 욕되게 하고 폭력적이며, 원칙이 없으며 둔하고, 사고력도 없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외국여인들을 열등하게 보고 평가하며 자민족 중심주의적 시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로체스터는 크레올 출신인 버사와 대조를 이루는 순수 영국 여인으로 제인을 표현하고 대하며 외국 여인들의 도덕적 결함을 비난한다. 세인트 존 에게는 인도는 무지와 편견으로 가득 찬 지역으로 인도인은 열등한 존재로서 그런 무지를 없애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로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다. 세인트 존은 제인을 억압하며 인도인과 마찬가지로 지도하고 계몽하고자 한다. 그는 식민지 인들을 계몽한다는 미명하에 지배자로서 피지배자의 주체성을 말살하고 자신에게 복종을 요구하며 제인에게도 역시 절대적 수동적인 보종을 원한 것이다.

『제인 에어』가 제국주의적 원리를 지녔다는 것을 확연히 드러낸 것은 『제인 에어』를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리스의 『드넓은 사가소 바다』를 통해서이다. 리스는 광녀로 취급되어 다락방에 갇힌 로체스터의 전처 버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 19세기 영국의 제국주의적 원리를 바탕으로 로체스터에 의해 감금되고 억압받은 채 자신의 목소리도 잃어버린 그녀는 인종적, 성적으로 차별을 받는 존재이다. 리스는 어린시절부터의 버사의 이야기를 다루며 식민지인으로서 로체스터의 재산유지를 위해 결혼을 하게 되고 백인우월주의에 의해 희생당하는 그녀에게 목소리를 부여한다. 『제인 에어』에서 감금되고 사라진 버사 만의 이야기를 쏜필드의 다락방이 아닌 새로운 공간인 자메이카에 배치시키며 타자로서 잃어버린 그녀의 목소리를 찾아준 것이다.『드넓은 사가소 바다』에서 가부장적 권위와 제국주의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 지배자로서 피지배자를 억압하는 제국주의적 이미지가 가부장 사회 속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지배자로서 피지배자들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와 같은 것이다.

남성에게 억압당하고 지배당했던 백인 여성으로서 제인이 자신을 식민지인과 동일시 취급하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미개하고 우매한 식민지인들과는 다르다는 주장에서 인종 차별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또한 삼촌인 존 에어로부터의 유산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독립과 남성에 의해 감금되고 지워진 버사라는 인물에 대한 사실

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제국주의적 성향이다.

페미니즘적 성향과 제국주의적 한계를 고려한 채 『제인 에어』를 다시 논의하면 제인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성적, 계급적으로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이었지만 인종적으로는 제국주의적 원리를 가졌다. 즉 제국주의적 한계인 것이다.

BIBLIOGRAPHY

Allott, Miriam, ed. *Charlotte Brontë: Jane Eyre and Villette.* London & Basingstoke: Macmillan, 1973.

_____. *The Brontës: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Azim, Firdous. *The Colonial Rise of the Novel*. New York: Routledge, 1993.

Basch, Francoise. *Relative Creatures: Victorian Women in Society and the Novel*. New York: Schocken, 1974.

Bloom, Harold. *Charlotte Brontë's Jane Eyre*.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Boumelha, Penny. *Charlotte Brontë*. New York &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0.

Brontë, Charlotte. *Jane Eyre*. Ed. Erica Jong. New York: The Penguin Group, 1997

Brown, Julia Prewitt. *A Reader's Guide to the Nineteenth Century English Novel.* 박오복 · 이경순 공역. 서울: 열음사, 1990.

Chase, Richard. "The Brontës, or Myth Domesticated." *Jane Eyre*. Ed. Richard J. Dunn. New York: Norton, 1971.

Eagleton, Terry. *The Myths of Power: A Marxist Study of the Brontës*. London & Basingstoke: Macmillan, 1975.

Gaskell, Elizabeth. *The Life of Charlotte Brontë*. Ed. Alan Shelston. Baltimore, Maryland: Penguin Books, 1975.

Gilbert, Sandra & Gubar, Susan.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New Haven & London UP, 1984

Leavis, Q. D."Jane Eyre." *Collected Essays: The Englishness of the English Novel.* Ed. G. Singh. Cambridge: Cambridge UP, 1983.

Mill, John S. "The Subjection of Women." *On Liberty and Other Writings*. Ed. Stefan Collini. London: Cambridge UP, 1989.

Millett, Kate. 『성의 정치학』. 정의숙 · 조정호 공역. 서울: 현대, 1983.

Moglen, Helen. *Charlotte Brontë: the Self Conceived*. New York: Norton, 1976.

Rhys, Jean. *Wide Sargasso Sea*. Ed. Hilary Genkin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2001.

Rich, Adrienne. "Jane Eyre: The Temptation of a Motherless Woman(1973)." *On Lies, Secrets, and Silence: Selected Prose 1966-1978*. New York: Norton, 1979. 89-106.

Rigby, Elizabeth. "Vanity Fair, Jane Eyre and the Governesses." *Quarterly Review 84* (1848).

Rigney, Barbara Hill. *Madness and Sexual Politics in the Feminist Novel: Studies in Brontë, Woolf, Lessing and Atwoo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8.

Rousseau, J. J. *Emile.* 손정수 역. 서울: 배재서관, 1994.

Sharpe, Jenny. *Allegories of Empire: the Figure of the Woman in the Colonial Text*. Minneapolis: U of Minnesota Press, 1993.

Showalter, Elaine. *A Literature of Their Own: British Women Novelists From Brontë to Lessing*. Princeton: U of Princeton, 1977.

_____. ed. "Feminist Criticism in the Wilderness." *The New Feminist Criticism Essays on Woman, Literature and Theory*. New York: Pantheon, 1985.

Spivak, Gayatri Chakravorty.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Methuen, 1987.

Williams, Merry. *Women in the English Novel 1800-1900.* London: Macmillan, 1984.

Williams, Raymond. "Charlotte and Emily Brontë." *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Frogmore: Paladin, 1974.

Wollstonecraft, Mary.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Ed. Barbara Taylor. London: Avid Campbell Pub, 1992.

Zonana, Joyce. *The Sultan and the Slave: Feminist Orientalism and the structure of Jane Eyre.* Journal of Woman in Culture and Society, 1993.

고부응. 『초민족 시대의 민족 정체성 - 식민주의 · 탈식민 이론 · 민족』.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김은경. 「『제인 에어』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야만인 담론」. 『영어영문학연구』 제 27권 2호. 2001. 55-73.

류승희. 「『드넓은 사가소 바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 뿌리없는 정체성 탐구를 중심으로」. 교원대학교 대학원 학사논문집 제51집, 2000.

조애리. 「Charlotte Brontë 연구: 여성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_____. 「제국과 여성: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페미니즘 시각에서 영미소설 읽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_____. 「제국주의와 『제인 에어』」. 『근대영미소설』 제6집 제2호. 1999.

최윤정. 「Charlotte Brontë의 Jane Eyre연구: Jane의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55.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	학 번	20048152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안 서 현 한문: 安 瑞 賢 영문: An, seo-hyun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삼호아파트 101동-1004호				
연락처	016-628-2256 E-MAIL: tweetye@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제인에어』 에 나타난 페미니즘과 제국주의적 한계 영문 : A Study of Feminism and the Limitation of Imperialism in *Jane Eyre*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7년 8 월 일

저작자: 안 서 현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